

다문화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한 연구: 뉴스기사 사용실태 파악과 현장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백민경* · 심준영**†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A Study on the Use of Multicultural Terminology: Focusing on the Status of News Articles and Interviews with Field Experts

Baek, Minkyung* · Shim, Joonyou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an exploratory study to identify the discomfort of using multicultural terms. The contents of the study included exploration of prior research, analysis of news articles, and in-depth interview with field exper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ve multicultural terms such a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가족' and '다문화가정' were extracted from exploration of prior research. Second, as a result of news analysis, 'multiculturalism' mainly appeared in the early 2000s and has been rapidly decreasing since 2006,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have been steadily written. In contrast, '다문화가족' and '다문화가정', which first appeared in 2003 and 2004, have exceeded 80% of multicultural news articles since 2009. Third, regarding multicultural term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well aware of '다문화가족' and '다문화가정', and little knew of 'multiculturalism'. In an interview conducted before learning multicultural terms, '다문화가족' and '다문화가정' were recognized as familiar but uncomfortable and distinguishing terms. And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were recognized as abstract and unfamiliar terms. In an interview conducted after learning about multicultural terms, the study participants expressed confusion about the mixed use of multicultural terms with different meanings and recognized the need for clarification.

Key words: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ies),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부터 외국인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체류 외국인이 총인구의 4.3%를 차지(Ministry of Justice, 2023)하며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주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는 국가를 다문화 국가로 보는 OECD 기준(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2020)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조만간 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에 유입된 이주민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이민자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 이유는 비교적 짧은 기간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결혼이민자는 가정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가 늘어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다인종·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규정하고 각 부처가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고(Jang, 2021),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로 통칭)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2015년까지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학생 그리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계획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2016년부터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으로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책들은 평균 20쪽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Jang, 2021).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2009년부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였고, 2011년에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2013년부터 5년 단위의 정책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Jeon, 2021). 이처럼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정 아동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계획이 2006년부터 꾸준히 발표됨으로써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연구(Jun, 2017; Ko, 2010; Lee et al., 2013; Lee & Jo, 2022; Park et al., 2014; Ra & Oh, 2019)되

고 있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J대학교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과 학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리빙랩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중등 가정과 교사들과 함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하였고,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Shim & Baek, 2021; 2022)하였다. 그런데 리빙랩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문제정의 단계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다문화 용어, 특히 다문화아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불편함을 표현하며, 다문화아동을 ‘콜라내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차별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당시 리빙랩 프로젝트팀에서는 다문화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문화·비다문화아동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으로 목적을 바꾸어 개발이 진행되었다.

리빙랩 프로젝트팀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된 후, 본 연구진은 리빙랩의 문제정의 단계에서 도출되었던 다문화 용어 특히 다문화아동 용어사용의 ‘불편함’이 무엇인가, ‘불편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등에 관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의 내리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같은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단어사용의 ‘불편함’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들이 밝히는 다문화 용어사용의 불편함에 집중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다문화 용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을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용어를 정리한다. 둘째, 정보습득의 주요 통로인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다문화 용어의 사용실태를 살펴본다. 셋째,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와 인식에 대하여 파악하는 질문을 통해 다문화관련 용어에 대한 문제를 파악한다.

II. 문헌 고찰

1. 다문화 용어의 등장과 정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용어가 대중적으로 부상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인구 통계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 현상에 대해 처음부터 다문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다문화 용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미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Kim, 1984)였고, 언론매체에서도 1991년에 미국의 역사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사(Kim, 1991)를 통해 소개되었다. 당시 미국 내의 인종주의 확산에 따른 다문화교육 논란을 다루는 뉴스 기사가 다수 작성되면서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그리고 다문화사회 등의 용어가 소개되었다.

다문화가족 용어는 2004년 4월에 ‘건강가정시민연대’라는 연합 단체에서 제안한 용어로 그 출발은 기독교 사역단체인 하이패밀리에서 사용한 용어였다. 이 단체는 ‘국제결혼가족’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을, ‘혼혈아(혼혈인)’를 ‘다문화가족 2세’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였다(Jang, 2011). 그런데 이 용어가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년-2007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방안」(2008년)으로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공식화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에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 서며 전체 인구 대비 4.9%에 달한 바 있고,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2022년 체류 외국인이 190만 명 정도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히 전체 인구 대비 4%에 육박하고 있다(MOI, 2023). 이미 2007년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는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Suh, 2010).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2년부터 3년마다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인구구성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부상하면서 이민자의 문화적 적응, 사회·경제적 정착과 함께 이민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수용성이 핵심적 의제로 설정된 조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이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필요에 따라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수용성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사용된 데 이어 최근에는 다문화 장병(Im & Lee, 2022; Kwon & Kang, 2019)이란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현장 전문가들의 다문화 용어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명칭인 다문화 수용성과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인 다문화 장병은 제외하고 <Table 1>과 같이 5가지 용어로 한정하였다.

2. 다문화 용어사용에 대한 선행연구

다문화 용어사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2008년부터 2010년경에 많이 이루어졌다. 다문화 용

Table 1.
Definition of Term

용어	정의	Reference
다문화주의	한 사회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이질적인 주변문화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소수자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Sim, 2022
다문화사회	민족이나 인종, 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로 한 국가나 사회 속에 여러 다른 생활방식이 존재한다는 것	National archives of Korea, n.d.
다문화교육	청소년들이 다문화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	Kim & Lee, 2021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Lee et al., 2021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	Park, 2019

어사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문화사회 현상에 집중한 연구(Cha, 2008; Kim, 2008), 다문화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연구(Lee, 2010; Min, 2008),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용어에 대한 연구(Park & Kwak, 2008; Kim, 2009) 등이다.

Cha(2008)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다인종, 다문화가족 등의 용어가 남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Kim(2008)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인종·다민족화 현상과 실현해야 할 과제로서의 다문화사회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용어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연구한 Min(2008)은 다문화 관련 용어나 개념이 과도하게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히며 ‘다문화가정, 코시안, 새터민’이란 용어는 차별적 용어의 범주에 있어서 폐기되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Lee(2010)도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들이 주류 구성원들과 구별짓거나 편중된 교육지원을 하는 등 분리, 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과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대한 연구(Kim, 2009; Park & Kwak, 2008)에서도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협소하고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다문화가족 용어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용어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법제화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아동 그리고 다문화교육 등의 용어는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다문화 용어 확산과 혼용에 대해 Suh(2010)는 다문화와 관련된 7개의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FGI 조사를 통해 다문화 관련 용어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정부 부처의 다문화 관련 용어는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홈페이지의 내용과 용어가 크게 변화하였고,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다문화 용어의 혼용에 대하여 의미의 혼돈과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다문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이 다문화 용어의 혼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일된 단어로 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Suh(2010)의 연구 이후 다문화 용어 혼용에 대한 연구는 살펴볼 수 없고, 신문 코퍼스를 활용한 다문화 공기어를 분석한 Choi(2017)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Choi(2017)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용어는 2005년부터 용례가 검색되는데, 당시 공기도 1위인 용어는 ‘주의’였지만, 2009년 이후 사라지고, 대신 ‘가족’, ‘가정’, ‘지원’, ‘사회’, ‘교육’ 등의 용어가 등장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본래적 의미인 ‘다문화주의’보다는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 등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많아지면서, 다문화 용어 특히 다문화가족 용어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Kim(2021)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될 당시 부정적 의미인 혼혈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다문화가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한국보다 다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또는 동남아 나라의 이주민을 하대하는 의미로 이미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법률적인 해석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난민인정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및 동포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소외감 인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Lee(2022) 또한 현행 다문화가족법의 문제점으로 다문화가족 용어에 적용된 협소한 다문화개념을 지적하며,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률명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 처음 등장한 다문화 용어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이었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사용하는 정책용어이고, 중등 교육과정 가정과에서 다루는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가정과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요구 및 다문화가족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재조명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문화가족과 대면하는 현장 전문가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중등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 용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문화 용어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부합할 것이다.

III. 다문화 용어의 사용 실태

1.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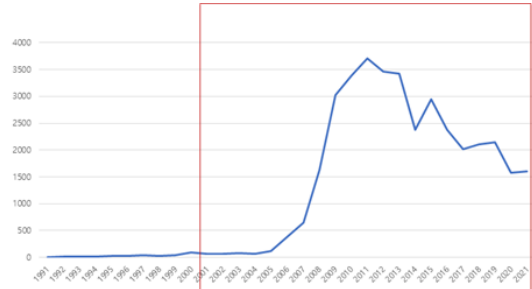
다문화 용어의 사용실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카인즈(BIGKinds)의 뉴스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빅카인즈는 전형적인 웹크롤링 말뭉치로서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Kang, 2020)이다. 뉴스 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공적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인 시민에게 뉴스는 정보습득의 통로이자, 시민적 참여를 이끄는 밑바탕이 된다(Song, 2020). 따라서 2000년대부터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했던 다문화와 관련된 뉴스 텍스트 자료 분석을 통해 다문화 용어의 사용 양상 또는 혼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는 다문화(茶文化)와 다문화(多文化)로 동음이의어가 존재한다. 이에 다문화(多文化) 관련 뉴스 기사의 추출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검색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문화를 핵심 단어로 입력하여 추출된 뉴스 기사 중 내용을 확인하여 다문화(多文化)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1991년)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Figure 1>과 같이 다문화와 관련된 뉴스가 매년 50개 이상 작성되기 시작한 시기를 확인하여 분석 기간을 2001년부터 2021년으로 제한하였다. 다문화 관련 뉴스가 급증한 시기는 2008년부터지만, 다문화 용어 사용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사회 등의 용어가 소개되던 시기인 2001년부터 2007년의 기간도 분석범위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언론사를 전국일간지로 한정하여 다문화 용어를 핵심 단어로 넣어 관련 뉴스 기사를 추출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핵심 용어는 선행연구(Choi, 2017)를 참고하고 2인의 연구자가 논의하여 선정하였다. Choi(2017)의 연구 결과, 2005년부터 2013년에 신문 코퍼스에서 나타난 다문화 연도별 공기어 중 사회, 가정, 가족, 교육, 지원, 외국인, 여성, 문화, 주의, 노동자, 자녀 등이 5순위 이내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와 위의 공기어를 결합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

Figure 1.

Changes of 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News



다문화여성, 다문화주의, 다문화자녀 등을 사용 가능한 다문화 용어로 선정하였다. J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의 리빙랩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타났던 '다문화아동' 용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뉴스 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분석용 핵심 용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BIGKinds의 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작성된 뉴스기사의 빈도를 확인하여 500건 이상의 뉴스 기사가 작성된 다문화주의(1,109건), 다문화사회(1,932건), 다문화교육(772건), 다문화가족(5,094건), 다문화가정(16,513건) 등 5개의 용어를 최종 핵심 용어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뉴스 기사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용어 사용 실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5가지 다문화 용어로 추출된 뉴스 기사의 빈도 변화를 통해 다문화 용어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이 2000년대 초반에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뉴스 기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6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 2013년 이후 1-2%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사회' 용어로 추출되는 뉴스 기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1-2건이 추출되었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뉴스 기사가 나타났다가 2010년 이후 비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다문화교육'으로 검색되는 뉴스 기사는 2004년에 처음 나타났고, 뉴스 기사의 빈도는 2004년과 2005년의 1건부터 2010년의 87건까지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Frequency of Multicultural News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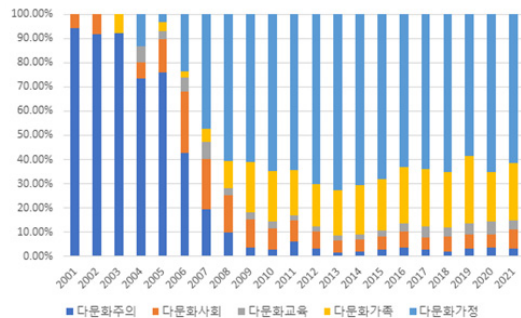
연도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Total
2001	17 (94.44)	1 (5.56)	-	-	-	18 (100.00)
2002	22 (91.67)	2 (8.33)	-	-	-	24 (100.00)
2003	12 (92.31)	-	-	1 (7.69)	-	13 (100.00)
2004	11 (73.33)	1 (6.67)	1 (6.67)	-	2 (13.33)	15 (100.00)
2005	22 (75.86)	4 (13.79)	1 (3.45)	1 (3.45)	1 (3.45)	29 (100.00)
2006	36 (42.86)	21 (25.00)	5 (5.95)	2 (2.38)	20 (23.81)	84 (100.00)
2007	54 (19.57)	57 (20.65)	19 (6.88)	15 (5.43)	131 (47.46)	276 (100.00)
2008	78 (9.64)	125 (15.45)	25 (3.09)	89 (11.00)	492 (60.82)	809 (100.00)
2009	82 (3.70)	257 (11.60)	63 (2.84)	464 (20.94)	1350 (60.92)	2216 (100.00)
2010	78 (2.78)	239 (8.52)	87 (3.10)	581 (20.71)	1821 (64.90)	2806 (100.00)
2011	200 (6.21)	276 (8.57)	72 (2.23)	605 (18.78)	2069 (64.21)	3222 (100.00)
2012	82 (3.03)	195 (7.20)	60 (2.21)	468 (17.28)	1904 (70.28)	2709 (100.00)
2013	37 (1.49)	130 (5.22)	52 (2.09)	463 (18.59)	1808 (72.61)	2400 (100.00)
2014	35 (2.03)	82 (4.76)	40 (2.32)	349 (20.24)	1218 (70.65)	1724 (100.00)
2015	54 (2.89)	99 (5.29)	48 (2.57)	396 (21.17)	1274 (68.09)	1871 (100.00)
2016	59 (3.76)	100 (6.38)	56 (3.57)	360 (22.96)	993 (63.33)	1568 (100.00)
2017	36 (2.80)	65 (5.06)	60 (4.67)	300 (23.35)	824 (64.12)	1285 (100.00)
2018	26 (2.14)	73 (6.00)	47 (3.87)	276 (22.70)	794 (65.30)	1216 (100.00)
2019	40 (3.19)	72 (5.74)	56 (4.46)	350 (27.89)	737 (58.73)	1255 (100.00)
2020	28 (3.54)	44 (5.56)	42 (5.31)	162 (20.48)	515 (65.11)	791 (100.00)
2021	29 (3.38)	67 (7.81)	30 (3.50)	205 (23.89)	527 (61.42)	858 (100.00)

note: n(%)

한편 ‘다문화가족’ 그리고 ‘다문화가정’ 용어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건과 2건이 나타나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장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며 2006년에 20건(23.81%)으로 증가하고 2008년에 492건(60.82%)으로 급증하였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용어는 정부의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이 두 용어를 합산한 뉴스 기사의 양은 2009년 이후 80%를 넘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두 용어로 검색되는 뉴스 기사의 양이 90%를 초과하며 다른 다문화 용어들을 압도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 용어의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여 시각화해본 결과, <Figure 2>와 같이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으로 사용 양상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 기사 속 다문화 용어의 사용실태 변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다문화 용어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Figure 2.
The Relative Ratio of Multicultural News by Year



IV. 다문화 용어에 대한 인식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지역아동센터의 관계자들이 다문화 용어 특히 다문화아동 용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냄으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다문화 용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다문화 용어에 대한 학습 이후 다문화 용어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회씩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1차 인터뷰와 2차 인터뷰 사이에는 3주간의 다문화 용어 학습 기간을 두었다. 1차 인터뷰에서는 문헌 고찰에서 정리된 5가지 다문화 용어를 제시하여 알고 있는지 묻고, 각 용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였다. 3주간의 학습 기간에는 문헌 고찰 내용-다문화 용어의 정의와 선행연구-뉴스 기사 내의 다문화 용어 사용실태 등을 정리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공하였고, 제공 시 추가 설명 필요 여부를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여 필요할 때 제공하였다. 개인 학습이 마무리된 이후, 2차 인터뷰에서도 1차 인터뷰와 동일하게 5개 다문화 용어에 대해 아는 정도를 묻고, 각 용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J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의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중등 가정

과 교사들로, 참여자들의 특징 그리고 1차와 2차 인터뷰의 시간량과 완전축어록의 분량은 <Table 3>과 같다. 지역아동센터의 관계자들은 40-50대, 경력이 10년 이상이었으며 그들이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등 가정과 교사들의 경우, 교육경력이 5년 미만이지만 모두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었다.

다문화 용어에 대한 인터뷰는 리빙랩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중등 가정과 교사의 인터뷰는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1) 다문화 용어(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를 알고 있는 정도와 2) 각 다문화 용어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었다. 인터뷰 내용은 mp4 파일로 녹음한 후, 음성을 텍스트로 변화해주는 다글로(daglo.ai)를 활용하여 완전축어록을 변환하고, 녹음파일을 반복 청취하며 완전축어록 내용의 정확성을 높였다. 완전축어록은 한글 신명조 폰트 10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질적 연구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 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다(Padgett,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과 인식, 느낌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물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연구의 선입견과 가정을 배제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리빙랩 관련 사업 진행과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nd Interview Capacity

연구 참여자	연령대	경력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A	50대	18년	22:43min(7p)	43:51min(13p)
	B	40대	13년	27:11min(7p)	30:47min(10p)
	C	50대	15년	35:51min(10p)	33:05min(11p)
	D	50대	16년	28:08min(8p)	52:12min(15p)
중등 가정과 교사	A	20대	4년	32:46min(11p)	24:45min(8p)
	B	20대	3년	37:12min(12p)	20:05min(6p)
	C	20대	3년	32:19min(10p)	30:01min(10p)
	D	20대	2년	54:47min(17p)	37:19min(12p)

note: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의 인터뷰 시간(완전축어록 양)

정에 대한 자료와 완전 축어록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2인의 연구자가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교차 확인한 후, 아동·가정학 전공교수 1인 그리고 아동특수교육 학 박사과정 1인이 전반적인 인터뷰의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2. 1차 인터뷰 결과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 용어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차 인터뷰에서 다문화 관련 용어로 추출된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등 5개의 용어에 5점 척도(1=거의 알지 못한다, 5=매우 잘 안다)로 알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문화 용어 중 모든 참여자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용어는 다문화가족(M=5.00)과 다문화가정(M=4.75)이었고, 거의 알지 못하는 용어는 다문화주의(M=1.13)였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용어는 다문화교육(M=2.25)과 다문화사회(M=3.38)였다.

1차 인터뷰에서 나타난 다문화 용어에 대한 인식은 용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용어에 대해 익숙하지만 불편함, 구분 짓기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등에 대해 추상적이고 낯설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익숙하지만 불편함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선택되었고, ‘다문화’라고 하면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 아이를 대면하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다문화 용어를 10여 년 전부터 들었지만 사용하기 꺼려진다고 하였다.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수업 중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을 언급하지만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지역마다 있어서 거기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중략- 잘 모르겠는데 묘하게 다문화라고 말하면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아요. 왜 그런지 몰라. 나도 모르게 다문화는 좀 꺼려져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A)

2학년 수업 중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르치니까 그때 다문화가족을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음 뭐랄까. 공개적으로 쓰기엔 좀 불편하죠. 다문화 학생도 조사하라고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못해요. (중등 가정과 교사 D)

2) 구분하기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다문화’ 하면 떠올리게 되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용어가 특정 대상자를 일반으로부터 구분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다문화가족’은 자연스럽게 다른 가족을 ‘비다문화가족’으로 위치시키기 때문에 다문화가 붙는 용어는 구분의 용어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다문화 용어 사용의 ‘불편함’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다문화아동 등의 용어가 특정 대상을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것을 알아가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 애들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너는 다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A)

대학 은사님이 ‘다문화아동을 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한 학생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던 애가 있어서 따로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첫 반응이 “왜 저예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이의 눈빛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애들에게 상처구나. 이건 기회가 아니구나. (중등 가정과 교사 B)

어떤 애들은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 왜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중에도.. 어머.. 나 좀 봐.. 나도 벌써 ‘우리나라 애들’이라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좀 그래요. 애써 노력은 하는데,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 속에 ‘외국인’이 섞여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그들과 구분되는 애들을 우리나라 애들이라고 쓰게 되네요.(지역아동센터 관계자 D)

3) 추상적이고 낯설

1차 인터뷰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선택한 다문화주의 용어는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8명의 현장 전문가가 모두 모른다고 응답한 용어로서,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담론 차원의 용어인 다문화주의를 낯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주의? 처음 들어봤어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정이란 용어는 늘 사용하는 용어니까 알겠는데, 다문화주의는 솔직히 처음 보는데요.(지역아동센터 관계자 B)

제가 요즘 상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배우는 다문화는 또 달라요. - 중략 - 한국말로는 다 다문화인데, 그게 분야마다 다르게 언급되니까 이상했어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정은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사회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져요. 단어를 들어봤는데, 책에서만 본 느낌 이랄까 낯설고, 익숙하지 않죠.(중등 가정과 교사 C)

다문화사회는 뭔가 정부에서 하는 캠페인 느낌이에요. 뉴스 기사도 보니까 다문화사회는 공익광고 같은 느낌이던데요.(중등 가정과 교사 B)

3. 2차 인터뷰 결과

다문화 용어에 대한 학습 이후 진행된 2차 인터뷰에서 연

구 참여자들은 5점 만점으로 진행한 5가지 다문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는 모든 용어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M=5.00)고 밝혔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다문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음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1) 혼란스러움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고,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문화 용어 학습 과정에서 알게 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교육’ 등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을 호소하였다. 평소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등의 용어를 공문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 이후 ‘다문화가족’ 용어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솔직히 다문화는 공문에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 같아요. 다문화가족 조사 같은 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문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해는 되는데, 솔직히 다문화주의랑 다문화사회에 대해 공부하면서 더 헷갈려졌어요.(중등 가정과 교사 D)

진짜 볼수록 이해 안 되는 게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를 왜 만들었을까요? 다문화가 다양한 문화를 아우른다는 원래 뜻이랑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요.(중등 가정과 교사 A)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사회를 알아보니까 여러 문화가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문화가 한 가족에 들어있는 건가? 뭐 전라도 여자랑 경상도 남자가 결혼하면 그것도 다문화인건가? 공부해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뭐 말인지.(지역아동센터 관계자 C)

2) 정책 용어(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문화 용어에 대한 학습 이후, 다문화 용어 혼용 문제 그리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용어 특히 정책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등은 우리 사회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다문화아동, 다문화장병 등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가르친다는 건 아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안타까워요. 다문화가족은 단순하고 쉽게 정의 내려지니까 다른 다문화 용어도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요. 공부해 보니까 의미가 너무 다른데. 정의를 잘 내려주고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중등 가정과 교사 C)

한부모가족이나 이혼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결이 달라요. 이걸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설령 다문화가족이었다가 이혼가족이 되거나 한부모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인 거잖아요. 이 단어를 없애든가 바꾸든가 하지 않으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중등 가정과 교사 D)

학습자료를 보고 있다가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서 다문화장병에 대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애들인데, 아빠는 우리나라 사람일 거고, 사실은 엄마도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20년 넘게 살았으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애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딱지가 붙여지는 것 같아요. 다문화라고. 어떻게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C)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J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진행된 리빙랩 프로젝트의 문제정의 단계에서 도출된 다문화 용어사용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불편함’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다문화 용어사용의 ‘불편함’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 고찰, 뉴스 기사 분석 그리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등을 연구내용으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용어에 대한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용어를 도입된 시기부터 정리한 결과,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등의 5개 다문화 용어를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소개된 다문화 용어는 미국 내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와 뉴스기사였고, 2000년대에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인구 통계적 변화와 관련하여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등의 용어가 도입되었다. 이후 2006년 교육부를 통해 다문화가족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등의 용어가 정책용어로 사용되면서,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등의 용어가 모두 다문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2001년부터 2021년까지 5가지 다문화 용어로 추출된 뉴스 기사의 빈도 변화를 통해 다문화 용어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나타나다가 2006년부터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고,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은 꾸준히 작성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2003년과 2004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용어는 2008년에 492건이 추출되며 5개 다문화 용어로 작성된 전체 뉴스기사 중 60.82%를 차지하였다. 2009년 이후 정책 용어인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으로 추출되는 뉴스기사의 양은 80%를 넘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90%를 초과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셋째,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 용어 인식은 다문화 용어 학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문화

용어 학습 이전에 실시한 1차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잘 알고 있었고, ‘다문화주의’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다문화 용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앞서 다문화 용어로 추출된 뉴스 기사 빈도 분석에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용어가 전체 뉴스 기사의 80%를 넘는 결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익숙하지만 불편한 용어 그리고 구분 짓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등은 추상적이고 낯선 용어로 인식하였다. 게다가 5개 다문화 용어에 대한 학습 이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용어의 정의는 이해했지만,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등의 용어가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사회와 함께 사용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우며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은 다문화 용어 중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을 ‘구분의 용어’라고 인식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는 단어를 통해 소통하고 의미를 규정하며, 이러한 의미를 정규 교육과 뉴스 기사에서 사용하면서 후대에게 일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Cha, 2008; Kim, 2008; Kim, 2009; Kim, 2021; Lee, 2010; Lee, 2022; Min, 2008; Park & Kwak, 2008)에서 지적되었던 다문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정 등의 다문화 용어사용량은 뉴스기사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다문화가족’이 소외계층 집단으로 인식되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정책적 대상을 차별적으로 낙인화하는 사회의 시각 및 사용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약 15년간 사용하던 ‘다문화’ 용어 변경으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Kim, 2021, p.39)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아이를 대면하는 현장 전문가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중등 가정과 교사들이 다문화 용어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들의 인식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핵심역량 중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역량과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 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목표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감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구분의 용어로 인식되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정 등이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리빙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필요성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다문화 용어 중 구분의 용어로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대면하는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초·중등 교사 등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참고문헌

- Cha, Y. H. (2008). *Policy direc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Korean Society of Immigrants Academic Conference (pp. 137-193). Seoul: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 Choi, Y. S. (2017). A study of the co-occurring words with multiculture: Focusing on the Korean newspaper corpus.

-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24, 275-301.
<https://doi.org/10.15400/mccs.2017.04.24.275>
- Im, S. J., & Lee, J. H. (2022). Analysis of multicultural soldiers policy research trends: 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2010 to 2022.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5), 87-92. <https://doi.org/10.17703/JCCT.2022.8.5.87>
- Jang, H. U. (2011). Appropriateness of terms related to the children of immigrants in Korea: ‘Multicultural famil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Bilingual Research*, 46, 347-366. <https://doi.org/10.17296/korbil.2011..46.347>
- Jang, H. U. (2021). Critical review and suggest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0(6), 1-21. <https://doi.org/10.30974/kaice.2021.10.6.1>
- Jeon, N. H. (2021). Public library and social justice: Reading guidance for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2), 1-32. <https://doi.org/10.34221/KJPS.2021.29.2.1>
- Jun, K. S. (2017).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o support language development for a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Focused on the home study materials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2(2), 81-106.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328>
- Kang, H. S. (2020). Changes in the use of disaster type terms and social perceptions - Focusing on BIGKinds’ news text. *Korean Language*, 67, 1-32. <https://doi.org/10.52636/KL.67.1>
- Kim, B. B. (1991, July 14). *Global expression caught in the U.S. Segye Ilbo*. <https://www.bigkinds.or.kr>
- Kim, D. J., & Lee, S. K. (2021).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status in schools: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researchers, teachers, and student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0(5), 253-275. <https://doi.org/10.30974/kaice.2021.10.5.11>
- Kim, H. S. (2008). Migrant brides and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 sociological approach to recent discourse on “multicultural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2), 36-71.
- Kim, J. S. (1984). A theoretical study of an American multicultural education. *The Journal of American Studies*, 5, 35-60.
- Kim, J. S. (2021). Issues and new direct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Law Review*, 21(2), 31-55.
- Kim, Y. K. (2009). Multi-cultural family and new Korean citizens. *Citizen and Humanities*, 17, 106-133.
- Ko, U. (2010). A study on the model to build a language education system for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5(2), 1-24.
- Kwon, S. Y., & Kang, W. S.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soldiers. *Journal of New Industry and Business*, 37(1), 3-22. <https://doi.org/10.30753/emr.2019.37.1.001>
- Lee, E. C. (2022). An analysis of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from the viewpoint of immigrants’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69, 127-161. <https://doi.org/10.33446/KJLS.69.5>
- Lee, J. E., & Jo, H. Y. (2022).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out-of-school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the support program ‘dream connection’.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7(2), 31-60. <https://doi.org/10.56023/mcyca.2022.7.2.2>
- Lee, K. S., Lee, K. E., & Kim, J. S.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support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cultural diversity & multicultural efficacy -.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6(1), 1-19.
- Lee, M. K. (2010). Analysis of the discourse o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during 2006-2009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7(2), 155-176. <https://doi.org/10.22804/jke.2010.37.2.007>
- Lee, S. H., Han, E. J., Wang, S. S., & Im, S. Y. (2021). *Family welfare* (2nd ed.). Seoul: ChangJisa.
- Min, H. S. (2008). On the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5(2), 115-150.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 <https://www.korea.kr>.
-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2020, October 30). *2.22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4.3% of the total population*.

- status of foreign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in 2019*.
https://www.mois.go.kr/f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80781
- Ministry of Justice (2023). *A resident foreigner*.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National Archives of Korea (n.d.). *South Korea meets on record*. <https://theme.archives.go.kr>
- Padgett, D. K. (2001).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 K. Yoo, Trans.). Seoul: Nanam.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Park, H. S., Rhee, C. W., & Kim, M. J. (2014). Effectiveness of a bilingual home-environment program for preschool-ag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8, 261-288.
- Park, S. H., & Kwak, H. Y. (2008). An analysis on the law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2(3), 687-707. <https://doi.org/10.24231/rici.2008.12.3.687>
- Park, S. Y. (2019). *Fatherhood adaptation process of fa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 Nam, Korea.
- Ra, Y. E., & Oh, J. Y. (2019). The meaning of Korean fathers'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supporting project to visit maternal homes of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2(2), 83-110. <https://doi.org/10.14328/MES.2019.6.30.83>
- Shim, J. Y., & Baek, M. K. (2021). A study on a living lab program of university class for multicultural children using design thinking proces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7(2), 45-64. <https://doi.org/10.29113/skpaer.2021.27.2.003>
- Shim, J. Y., & Baek, M. K. (2022).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iving lab project to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8(3), 77-95. <https://doi.org/10.29113/skpaer.2022.28.3.04>
- Sim, S. W. (2022).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4(2), 347-386.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347>
- Song, W. S. (2020). How effective is NIE for adolesc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media use, news literacy and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0(1), 49-76. <https://doi.org/10.14696/jcs.2020.03.20.1.49>
- Suh, C. N. (2010). A study of the use of multicultural terminologies in Korea: Based on facts and FGI on related person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6(2), 145-168.

<국문요약>

본 연구는 리빙랩 프로젝트의 문제정의 단계에서 도출된 다문화 용어 사용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불편함’이 무엇인지 선행연구고찰, 뉴스기사 분석을 통한 다문화용어 사용실태 파악 그리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등을 연구내용으로 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 소개된 다문화 용어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등 5가지 다문화용어가 정리되었다. 둘째, 2001년부터 2021년까지 5가지 다문화 용어로 추출된 뉴스 기사의 빈도 변화를 통해 다문화 용어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나타나다가 2006년부터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고,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은 꾸준히 작성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2003년과 2004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2009년 이후 정책 용어인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으로 추출되는 뉴스기사의 양은 80%를 넘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90%를 초과하였다. 셋째, 다문화 용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잘 알고 있었고, ‘다문화주의’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용어 학습 이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익숙하지만 불편한 용어 그리고 구분 짓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등은 추상적이고 낯선 용어로 인식하였다. 다문화 용어에 대한 학습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다문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에 대해 혼란스럽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논문접수일자: 2023년 3월 2일, 논문심사일자: 2023년 3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4월 3일